

광주 정치권 “李대통령 행정통합 지원 약속 환영”

시의회 “시민 목소리가 속도·방향돼야”
추진과정 투명 공개·시민 의견 수렴을
‘세계 혁신’ 등 특례방안 구체화 필요
민주 시당 “국가균형발전 중대 전환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시·도지사 및 국
회의원들이 행정통합 추진에 뜻을 모은 데 대해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 “320만 시
·도민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은
‘빠르고, 바르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
과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와 지원 약속을 적극 환
영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
고 있다”며 “정부도 통합 추진을 위한 특례와 지
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제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가능성을 넘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의회는 “광주·전남 통합은 지방 소

멸, 산업 공동화, 수도권 1극 체제의 심화 앞에
서 광주와 전남을 살리고 시·도민 미래의 삶을
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반드시 가야 할
생존 전략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
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다만 통합이 가져올 변화
의 폭이 큰 만큼 시민들 사이에 기대와 함께 신
중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점도 존중돼야
한다”며 “광주시의 행정 체계와 재정, 자치권 전
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결정으로
충분한 논의와 공감, 명확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광주·전남 통합은 얼마나 빠르게
추진하느냐 보다 어떤 원칙과 기준 위에서 추
진하느냐가 시민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며
“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기대, 우려는 모두 시민
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통합 추진 전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속도’가 되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정성
있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
다.

또한 시의회는 “통합 과정에서 광주시가 재정
적 불이익이나 행정적 위상이 약화되는 일이 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
경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그린벨트 해제, 예비타당성조사
사 면제, 세제 혜택 등 특례 방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그랜드
비전이 실현되는 발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촉
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환영문을 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본격 추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1극 체제를 극
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
며 “지금 이 변화가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국가
적 과제로 규정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약속했다.

광주시당은 “통합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
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죽”이라며
“충분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 공공기관 이
전과 산업 기반 확충 등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
다.

/변은진기자



전남 청년들, CES서 혁신 아이디어 공유

전남인재생명교육진흥원은 11일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2026 전남도관에서 지역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 해양, 바이
오등 박람회 핵심기술 트렌드와 전남에 활용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사진>

간담회는 전남도 인재 양성 프로그램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에 참가한 전남지역 대학생
6개 팀 40명과 멘토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에서 주목한 핵심 기술 트렌드와 전남 접
목 방안을 놓고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동신대 ‘체험연구소’ 팀은 체질 AI와 천연물

융합 기술을 통한 K-Wellness 산업 활성화를, 목
포대 ‘EnerJet’ 팀은 재생에너지 기반 지능형
전력운용 기술 적용을, 순천대 ‘중증외상센터’
팀은 AI 기반 해상풍력 설비 진단 기술로 고장
대응력 향상을 제안했다. 또한 전남대 여수캠퍼
스 ‘SFAC’ 팀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을 활용한 선박·항만 탄소 저감을, 한국에너지
공과대 ‘GLOREY-전남’ 팀은 수소 연료전지
기반 해상 충전 플랫폼 구축을, ‘SynErgy’ 팀은
전남형 AI 기반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모
델 개발을 선보였다. /양시원기자

이정선·김대중 교육감 “반드시 통합돼야”

“李대통령 통 큰 지원 환영” 입장문
“교육자치 보장·인사 안정성 명시를”
시·도교육감, 오늘 시교육청서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통 큰 지원 의지를 밝히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11일 광주·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
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도지사, 광주·전남 국회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시·도 통합에 전
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이정선 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 “이 대
통령의 통 큰 지원 약속을 환영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위
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지
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광주·전남은 반드시 통
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은 행정통합
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서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초석을
놓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교육 본연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교육자치’가 보장돼야 하고 교직
원의 인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인사 안정성’
이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도교육감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

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며,
사람을 키워야 가능하다”며 “대전환을 위해서
는 교육 통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통합을 위한 거대한 흐름이
불필요한 논쟁에 가로 막혀서는 안된다”면서
“교육가족 여러분도 이 거대한 흐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전남은 본래 하나의
뿌리”라면서 “더 큰 광주·전남이 우리 아이들
에게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란 희망
을 함께 키워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과 김 교육감은 12일 광주시
교육청에서 회동을 갖고 교육통합 방향성에 대
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민주 전남도당 오늘 행정통합 결의문 채택

결의대회서 필요성·원칙 천명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12일 상무위원회
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환영 결의문
을 채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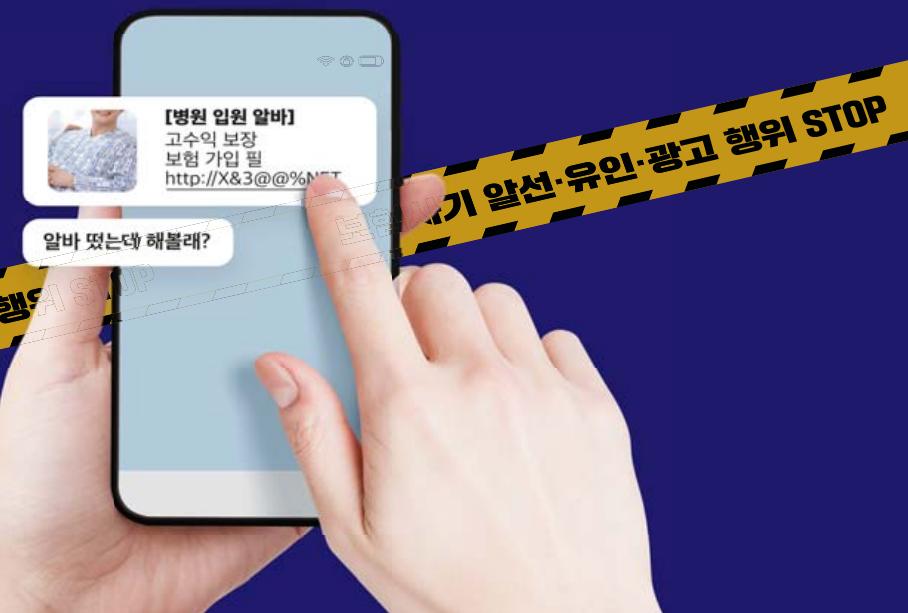
전남도당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
편이 아닌,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호남 대전환의 전략적
선택으로 규정하고 통합 추진에 대한 공식 입
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전남도당은 행정

통합 결의대회를 개최해 통합 추진 필요성과
원칙을 공식 천명할 예정이다.

결의대회에서는 ▲행정통합 적극 찬성 ▲상
호 존중·균형에 기반한 통합 원칙 ▲도의회·
시의회 의결 존중 및 주민 의견 수렴 ▲통합특
별위원회 구성·특별법 제정 추진 ▲차질없는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김재정기자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 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